

# 해방공간에서의 정지용 문학연구

- 민족주의 사상과의 관련양상을 중심으로 -

송기한\*

|| 차례 ||

1. 문제 제기
2. 이념 선택의 조건과 사상의 모색
3. 민족문학의 건설과 민족주의의 방향
4. 해방공간의 한계와 문학의 좌절
5. 민족주의 민족문학의 건설의 행방, 그리고 현재적 의의

## 【국문초록】

해방이후 정지용의 행적은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해방 이전에 활발한 활동한 시인이 이 시기의 문필활동은 보잘 것 없이 초라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해방공간의 혼란상에서 찾기도 하고, 민족문학 건설에 있어서의 뚜렷한 이념의 부재에서 찾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산문에서는 꾸준히 활동을 했고, 많은 편수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그의 행적을 두고 볼 때, 자신의 사상적 지향과 해방공간이 주는 현실과의 부조화가 그의 문학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원인을 정치노선의 차이에서 찾고자 한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정지용은 해방공간에서 다른 여타의 문학가들 못지않은 사상적 지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애국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였는데, 실상 이런 지향들은 식민지 이전의 시기부터 명확히 있어왔던 사상들이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것도 이 부분인데, 그를 단순히 모더니스트로 인식하고, 근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은 쉽게 간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이 무엇이었다라고 명확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히 내세운 적은 없지만, 그가 해방이후 발표한 산문이나 많지 않은 시편을 살펴보게 되면, 민족주의 노선에 많이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취한 사상 선택의 정합성 여부를 떠나 정지용이 보여주었던 이 노선이 해방공간의 현실에서 좌절되었고, 그 결과 그의 문학행위도 활발히, 아니 정확히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주제어 : 정지용, 민족주의, 순수, 고향, 지명, 향수

## 1. 문제 제기

비록 타의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해방은 많은 가능성을 주었다. 따라서 해방을 맞이한 주체들에게 있어 굴종의 역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국가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대만큼 이 시대를 압도했던 정서도 없을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세지들은 문학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러한 기대를 안고 이 시기 가장 먼저 활동을 개시한 것은 임화를 비롯한 좌익계 문인들이었다. 그들은 해방 이튿날 조선문학건설본부를 결성하고 이후 나아갈 민족문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친일분자나 민족반역자, 국수주의자가 아니라면 새나라 건설과 민족문학 수립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을 알렸던 것이다<sup>1)</sup>. 이른바 인민성에 기초한 민족문학의 실현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임화의 이 노선은 조선공산당 8월테제에 기반을 둔 것이었고, 이후 새롭게 조직된 조선문학가동맹의 기본 노선이 되었다.<sup>2)</sup>

1) 임화,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임무」, 『문화전선』, 1945.11.

2) 조선 문학가 동맹은 1946. 2. 7. -8.에 있었던 전국문학자대회를 계기로 결성된 남로당의 단체였다. 임화중심의 조선 문학 건설 본부와 9월 결성된 한효, 이기영 중심의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이 합쳐져서 조선 문학가 동맹이라는 거대 좌익문학단체

정지용의 문학 활동도 해방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의 활동은 지극히 제한적인 면에서 이루어졌지만<sup>3)</sup>, 어쨌든 그가 해방 이후 처음 쓴 시는 『愛國의 노래』이다. 그러하기에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주제 또한 해방의 감격에 맞추어져 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조국의 해방이 독립군들의 빼어난 활동과 신의로써 얻어진 연합국의 도움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은혜 또한 잊지 말자고 했다. 그러나 정지용은 이 작품을 통해서 해방이후 진행될 민족문학의 방향이나 새나라 건설의 형태에 대한 언급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단지 해방을 맞이한 사회와 그 배경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나와 있을 뿐이다. 애국을 소재로 한 행사시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러한 발언이 지극히 심정적인 차원의 것이었다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해방공간에 대한 정지용의 소박한 인식은 이후의 글에서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해방이후 정지용 문학의 행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시라 하겠다. 그의 그러한 행위는 1946년 2월에 있었던 민족문학자대회에서도 동일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임화를 비롯한 남로당계 문인들은 이 대회를 계기로 조선 문학가 동맹이라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이 단체가 결성되기 전, 좌익계의 문학조직은 두 개로 쪼개져 있었다. 하나는 임화 중심의 조선 문학 건설 본부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영, 한효 중심의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가동맹이었다. 전자가 인민성을 매개로 한 민족문학을 내세웠다면, 후자는 당파성을 매개로 한 민족문학 건설을 주요 과제로 상정했다. 정치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지만,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하는 문학은 타협이 될 수 없다는 맥락에서이

---

가 만들어진 것이다.

3) 이에 대해서는 김학동, 『정지용 연구』(민음사, 1987),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태학사, 1999) 등이 있다.

다.<sup>4)</sup> 그러나 그 정합성 여부를 떠나 이 두 단체는 남로당의 지시에 따라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 그것이 문학가동맹이다. 이 조직의 형성과 더불어 하위 조직으로 분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지용은 여기서 아동문학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이 직책을 맡은 것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지용과 아동문학이 갖는 상관성이다. 정지용 시의 출발이 동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한 기성의 문인치고 동시를 쓴 시인은 정지용이 거의 유일했다. 운동주가 있긴 했지만, 그는 정식 시인으로 데뷔한 상태도 아니고, 더군다나 해방이전에 요절하여 이 단체 결성과 무관한 상태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일경력과 모랄의 감각에서 찾을 수 있다. 문학가동맹이 추구한 기본 방향이랄까 이념 가운데 첫 번째 놓이는 것이 친일분자의 배제와 민족반역자의 소탕이었다. 적극적으로 친일을 한 경우라면, 문학가동맹이 추구한 민족문학의 방향과 상치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동문학을 했던 인사 중에 이런 경력을 소유한 문인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이 정지용을 이 분과의 위원장으로 앉히게 한 두 번째 이유이다<sup>5)</sup>. 그리고 세 번째는 사상적 측면이다. 해방 이후 정지용이 보여준 현실인식 및 정치의식은 대단히 미약한 것이었다. 그 단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앞서 인용한 『애국의 노래』이다. 해방공간의 현실이 감격과 같은 막연한 정서의 토로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 것임은 익히 잘 알려진 일거니와 정지용의 그같은 인식은 이후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만다. 이런 맥락에서 정지용은 민족문학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가 현

4) 한효, 『예술운동의 전망』, 『예술운동』 창간호, 1945.12.

5) 정지용 또한 이 부분에서 전연 자유롭다 할 수 있는데, 어용문학이었던 『국민문학』(4호, 1941.2)에 실린 『이토』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는 정도의 문제에 속하는 경우이다. 친일은 항상 적극성이나 아니냐가 문제시되는 것이기에 이를 두고 정지용을 친일시인으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히 떨어지는 인사였다. 시는 소설과 더불어 문학의 주요 장르이다. 조선 소설에 관한 보고를 임화가 수행한 것을 보면 그것이 차지하는 문단적 비중을 알게 되는데,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시에 관한 보고를 맡은 것은 김기림이었다. 김기림은 모더니스트였지만, 해방 이후 그는 문학가동맹의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기림은 문학적 지향점에서 계몽주의자의 면모를 전연 포기하지 않았지만,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이 단체에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이러한 면들이 정치용보다는 김기림에게 시 분야를 맡기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럼에도 정치용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의 불참으로 아동문학에 대한 보고는 박세영에 의해 대독되었다.<sup>6)</sup>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그의 사상은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나 아니면 모색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이념 선택의 조건과 사상의 모색

해방이후 문학인들에게 주어졌던 과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해방이전과의 관련양상, 곧 연속성의 문제였다. 그 연장선에서 이념선택의 과제 또한 선택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모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의 문제에 걸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 아니고 동전의 앞뒤처럼 붙어있는 것이었다. 일제시대의 친일여부는 새나라 건설을 당면과제로 내세운 해방공간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모랄의 기준이 되었다. 유명한 봉황각좌담회<sup>7)</sup>란 그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이며, 그 정당성 여부를

6) 이승원, 앞의 책, p.52.

7) 『인민예술』, 1946.10.

떠나 한번은 꼭 여과되어야 할 문제였다. 이 좌담회에서 가장 진정성이 있었던 임화의 논리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이유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8)</sup>

자기비판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임화를 비롯한 남로당계 문인 뿐 아니라 소위 순수문학을 했던 인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던 문제이다. 이 시기에 거론되었던 이른바 순수문학 논쟁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논쟁이란 말을 붙였지만 실상은 자기 항변에 가까운 것이라 해도 좋을 것들이다. 따라서 해방공간의 순수문학논쟁은 두 가지 요건이 전제된다. 하나는 일제라는 객관적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해방공간의 현실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를 더욱 상황적 논리로 휘몰아간 감이 없지 않다. 정지용은 일제 강점기에 펼쳐진 자신의 시에 대한 순수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다.

남들이 나를 부르기를 순수시인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스스로 순수시인이라고 의식하고 표명한 적이 없다. 사춘기에 연애 대신 시를 썼다. 그것이 시집이 되어 잘 팔리었을 뿐이다. 이 나이를 해가지고 연애 대신 시를 쓸 수가 없다. 사춘기를 훗석 지나서부턴은 일본놈이 무서워서 산으로 바다로 회피하여 시를 썼다. 그런 것이 지금 와서 순수시인 소리를 듣게 된 내력이다.<sup>9)</sup>

해방공간은 정치가 우선시되는 곳이다. 시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민족문학 건설이라는 당면과제로부터 한발자국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논리에 기대게 되면, 정지용의 이같은 발언은 두 가지 함의를 내포하게 된다. 하나는 일제 강점기 시절의 문학행위에 대한 자기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시기가 요구하는 의무에 대한 적극적 실

8) 임화는 이 좌담회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타협하고 싶었다는 속내를 드러낸 바 있는데, 그러한 솔직성이랄까 진정성이 자기비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9) 정지용, 「산문」, 『정지용 전집』2, pp.219-220.

천의지이다. 첫째는 행동의 문제에 걸리는 경우이다.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일제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야말로 이 시대를 건디는 최상의 방책이었을 것이다. 적을 앞에 두고 적극적으로 저항함으로써 민족의 일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지용은 그런 행동 대신에 시의 길이라는 간접적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시를 정치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우리 언어와 문학을 사수할 수 있었다는 것, 곧 문필행위를 통한 실천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했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순수가 정의를 만나면 실천으로 발전하지만 불의를 만나면 세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일제 강점기는 거역할 수 없는 불의였기에 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순수가 선택되었다는 것이 정지용의 논리인 셈이다. 실상 정지용의 이같은 논리는 순수의 전형으로 알려진 영랑의 시세계를 이해하면 일결 수 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영랑이 자신의 대표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에서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세속을 벗어난 순수의 극점이었다. 그것은 세속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나’의 고립에 의해 가능해지는 의식이다. ‘나’를 현실로부터 차단시키고, 이를 순수와 연결시킨 것, 그것이 영랑의 순수시가 갖는 구경적 의미이다.

정지용이 말하고자 했던 순수도 영랑의 그것과 동일한 차원의 것이었다. 그는 이렇듯 일제 강점기의 순수라는 매개항을 통해서 해방공간이 요구했던 모랄의 문제를 뛰어넘고자 했다. 이런 발상은 정지용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오장환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 정지용이 정치나 예술의 의도적인 분리를 통해서 순수를 이야기했다면 오장환은 이를 미학적인 논리로 접근한다. 오장환이 「조선시에 있어서의 상징」<sup>10)</sup>에서 주목한 것은 식민지 시대에 있어 시의 의장으로 구사된 상징의 효과가

다. 그는 그러한 상징의 역능을 소월의 시를 통해서 읽어내고 있는바, 그의 작품들이 시대나 삶의 고뇌 등을 상징이라는 의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기의 행위에 대한 자의식이 정지용에게는 순수문학에 대한 옹호로, 오장환에게는 상징의 효과에 대한 강변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해방 이전의 순수 문학에 대한 정당성과 달리 해방공간은 문학과 정치의 직접적인 결합을 요구했다. 따라서 순수와 같은 문학적 담론은 적어도 좌익계나 좌익지향적인 문학 단체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정지용 등의 순수문학에 대한 옹호가 해방공간에서는 비순수의 사상적 거점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요구하는 현실은 정의에 바탕을 둔 것이기에 순수란 이제 그러한 정의에 대해 회피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었다. 시와 정치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과학과 정치와 경제와 역사와 민족의 추진 비약기에 있어서 문화의 전위인 시와 문학이 일체를 포기하고 일체를 획득하는 혁명적 성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운명적 과업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예술적 이념과 감각이 침에 치열하여지는 것은 차라리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시인의 민감이 생리적 조건이라면 왜 이 생리를 거부하려는 것이냐.<sup>11)</sup>

해방공간에 놓여진 중심과제는 새나라 건설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성취할 수 있는 정권의 주도권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정치의 참여로 자연스럽게 내몰았다. 정지용이 시인의 민감을 생리적 조건으로 보면서 시와 정치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내세운 것도 여기에 그 원인

10) 오장환, 『조선시에 있어서의 상징』, 『신천지』, 1947.1.

11) 정지용, 『조선시의 반성』, 『문장』27호, 1948.10.



이 있었다. 시가 정치로 향하는 길에 비순수의 사상적 거점에 놓여 있다. 일제 강점기에서는 순수가 정당화되지만, 해방공간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해방공간에서 펼쳐졌던 시의 현실참여 논리였던 것이다.

### 3. 민족문학의 건설과 민족주의의 방향

시와 정치의 자연스러운 결합이 모든 문인들에게 요구했던 당면 과제였다면, 정지용 또한 이런 요구로부터 외면될 수 없었다. 해방 초기에 정지용의 정치성향이랄까 이념적 징후를 보여주는 뚜렷한 징후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가 문학단체나 정당 등에 가입했다는 정황도 없고, 또 이들 단체들이 지향하는 이념에 편향하는 글을 남긴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러한 중간자적인 태도는 『문장』지의 구성원이나 여타 문인들의 성향과 대비할 볼 때,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에서 함께 활동했던 가람과 상허가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을 쫓아서 우익이나 좌익으로 기울어진 사실에 비춰 보면, 정지용은 이들과 달리 쉽사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더니스트들이 리얼리스트로의 사상적 전환을 감행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때 그의 문학적 선택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그가 평소 보여주었던 소심함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소시민적 성격이 그의 사상 선택의 불확실성을 모두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지용은 해방공간의 현실에서 창작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작 대신 그는 많은 평론과 수필, 기행문 등 산문 분야에 주력해서 글을 썼다. 시를 포기하고 산문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의 문필활동에서

주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산문 역시 문학이외의 활동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정지용의 이력으로 볼 때, 그의 주된 문필활동은 시의 영역일 것이다. 그는 어찌서 시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지 못한 것일까. 문학이 계속 전진할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밝힌 다음의 글에서 그 일단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해방의 노래가 대개 일정한 정치노선을 파악하기 전의 사상성이 빈곤하고 민족해방 大道의 확호한 이념을 준비하지 못한 재래 문단인의 단순한 習氣의 문장수법에서 제작되었던 것이므로 막연한 축제 목적 흥분, 과장, 혼돈 무정견의 放歌 이외에 취할 것이 없었던 것이다.(중략) 아무 준비 없이 8·15를 당하고 보니 마비되었던 문학적 정열이 다시 소생되어 막연히 충동적으로 궤도 없이 달렸던 것도 얼마쯤 연민을 아낄 수 없는 것이었으나 민족 사상 부당한 시련기가 삼년이나 참담하게도 낭비되어도 진정한 민족 노선을 파악치 못하는 시인 문사에게 무슨 문학이 기대될 것인가?<sup>12)</sup>

인용글은 해방공간에서 문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던 정지용의 대표 산문인데, 여기서 내세운 것은 뚜렷한 사상의 부재현상이다. 정치 노선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 또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된 실체들이 모든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야말로 해방정국의 혼란상을 말해주는 가장 큰 증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난맥상을 대변해주듯 민족문학을 이끄는 노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는바, 당파성, 인민성, 시민성 주도의 문학론이 바로 그것이었다.<sup>13)</sup> 북한 중심의 당파성과 남로당 중심의 인민성, 그리고 우익 주도의 시민성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분류는 어디까지나 편의상의 분류일 뿐 그것이 해방정국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계선이 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단선화가

12) 정지용, 『조선시의 반성』, pp.271-275.

13)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참조.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있었던 해방공간의 정치현실이나 문학현실을 모두 대변해줄 수 없는 것인데, 가령 동일한 우익진영이라고 하더라도 우익을 이끌었던 김구 노선과 이승만 노선은 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공간이라는 희유의 정치적 공백기에 있어서 사상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지용의 행적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의 정치노선 이랄까 민족 문학의 방향에 대해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우선 그의 사상적 행적들은 해방 이후 처음 쓴 작품들을 통해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지용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쓴 시가 『애국의 노래』, 『그대들 돌아오시니』<sup>14)</sup>이다.

『애국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그대들 돌아오시니』를 이끌어가는 중심 주제는 애국사상이다. 정지용의 말대로 이 시는 해방의 감격과 이를 가능케 한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의 정을 읊었다. 민족문학의 건설이라든가 이념 선택의 방향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해방의 환희와 열정을 직접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말하고 싶었던 해방의 감격을 이야기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가 요구했던 정서와 꼭 들어맞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그것이 정지용의 작품이기에 더욱 그러한데, 이런 선택 부른 판단을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일까.

정지용은 이 작품을 쓴 이후에 거의 작품을 쓰지 않았다. 이후 세편<sup>15)</sup> 정도가 더 있긴 하지만, 식민지 시대에 왕성한 창작활동을 한 열정적 시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인식된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조선시의 반성』에서 언급한 대로 이념선택의 방향과 그에 따른 민족 문학 건설에 대한 올바른 확신이 서지 않은 탓일 것이다. 그런데 그 불

14) 『애국의 노래』는 1946년 『대조』 1호에 실렸고, 『그대들 돌아오시니』는 같은 해 『혁명』 1호에 실렸다.

15) 1949년의 『무제』와 1950년에 발표된 『曲馬團』, 시조인 『四四調五首』가 전부이다.

확실성의 중심에 바로 민족주의가 가로 놓여 있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정지용의 대표작은 「향수」이다. 1923년에 쓰여진 이 시는 그의 손에 간직된 채, 1927년이 되어서야 『조선지광』에 발표된다. 그가 이 작품에 대해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교토 유학시절에 있었던 김환태와의 일화 속에 잘 드러난다. 정지용은 어느 칠혹같이 깜깜한 날 김환태를 교토 시내의 상국사(相國寺) 뒤 끝 묘지로 데리고 가서 작품 「향수」를 읊어주었다고 한다.<sup>16)</sup>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열정이다. 이는 모더니즘의 정신사나 기법의 문제가 아니다. 직접적인 애국주의나 고향에 대한 열정 없이 이 작품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이 고유명사의 사용이다. 시집 『백록담』에 수록된 시들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것이 고유명사이다. 인용시 이외에도 「온정」, 「비로봉2」, 「구성동」, 「장수산」1, 「장수산」2, 「백록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간접적으로 이들 지역을 묘사한 시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지명의 발견과 그것의 시어로의 전용은 국토라든가 조국 등에 대한 애착의 정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에로의 몰입은 곧 물활론의 세계이며, 한국적 정서의 뚜렷한 환기라 할 수 있다.

정지용의 고유지명 사용은 그의 제자였던 박목월과 비교하면 뚜렷이 비교되는 현상이다. 목월은 해방 이후 쓴 자작시해설 「보랏빛 소묘」에서 자신이 작품 속에 고유지명을 가급적 쓰지 않았다고 했다<sup>17)</sup>. 조국의 산천에 기대고 싶었으나 모두 제국주의의 말발굽 아래 있었기에 거기에 안주하기 싫었고, 그 결과 가공의 자연을 창조하게 되었다고 했다. 목월은 제국주의가 싫어서 고유지명을 자신의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것인데, 이는 지명에 대한 적극적 포기에 해당한다. 이런 회피가 가상의 애국주의와 분

16) 김환태, 「京都의 3年」, 『김환태 전집』, 문학사상사, 1988, p.320.

17) 박목월, 「보랏빛소묘」, 『박목월』(박현수 엮음), 새미, 2002, p.260.

리하기 어려운 것임은 자명한 일이거나 정지용의 경우는 목월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시점에서 시의 창작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조선초갓집 지붕이 역시 정다운 것이 알아진다. 한데 웅기종기 마을을 이루어 사는 것이 암담 등저리처럼 다스운 것이 아닐가. 민주별은 5리나 10리에 상여집 같은 것이 하나 있거나 말거나 하지 않았던가. 산도 조선산이 곱다. 논이랑 받두둑도 흙빛이 노르끼하니 첫째 다사로운 맛이 돈다.<sup>18)</sup>

이런 정서를 조선주의와 분리시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의 국토기행이 열정이며 애착이고, 거의 신앙의 수준에 가까운 것이 된다. 이를 두고 애국적 민족주의라는 심혼의 극점으로 설명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정지용의 국토기행이랄까 민족주의적 여정은 해방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국도신문』의 요청으로 전쟁 전후까지 쓰여진 남해기행이 그러한데, 그가 여기서 본 것은 식민지 시대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 오히려 그 연장선에서 그의 민족주의적 색채는 더 한층 드러나게 된다. 가령 통영을 기행한 뒤에 쓴 다음의 글이 이를 잘 말해준다.<sup>19)</sup>

이러한 기행을 통해서 정지용이 발견한 것은 민족에 대한 강렬한 인식이다. 그는 통영에 있는 충무공의 사적지를 뒤돌아보면서 충무공의 애국심을 회상하고 깊은 감회에 젖는다. 그러면서 그의 업적에 비해 초라한 사당을 안타까워한다. 이런 사유는 진주 기행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데, 논개 사당과 축석루를 둘러보면서 그녀가 가졌던 구국사상에 대해 심심한 충절의식으로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적을 보면 정지용의 행동과 사상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18) 정지용, 『의주 1』, 앞의 책, p.69.

19) 정지용, 『통영』, 『정지용의 전집』2, p.137.

것을 알 수가 있다. 국토에 대한 애착과 민족주의적 색채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러하다. 그의 이러한 사유야말로 민족주의의 범주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민족주의에 대한 정지용의 시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글은 윤동주 시집의 서문이다.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간행된 것은 1948년 1월이었는데, 이때 정지용은 윤동주의 동생 윤일주로부터 시집의 서문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친구였던 정병욱 등에게 준 자필 시들이 전해져서 그의 동생인 윤일주가 간행했다. 이 시집이 상재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은 아마도 정지용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했을 것인데, 그 중 하나가 동지사대학의 후배라는 인연이다. 정지용이 동지사대학에 들어간 것이 1923년 4월, 그러니까 22살 때의 일이다. 그리고 이 대학을 졸업한 것이 28세 때인 1929년이다. 만 6년의 세월을 정지용은 이곳 동지사대학에서 보냈다. 짧지 않은 시절이었기에 정지용이 이 대학에 가졌던 애착이랄까 향수 같은 것은 매우 농도 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 이 대학에 다닌 사람이 윤동주였다. 윤동주가 이 대학에 들어온 것이 1942년이니까 윤동주는 정지용의 약 10년 후배가 된다. 이런 학연이 윤동주를 자신과 매우 친밀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동주의 전기적 사실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갖는 저항성에서 찾을 수 있다. 윤동주는 독립운동가 출신이다. 그는 동지사대학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인 1943년 7월 독립운동 혐의로 송몽규와 함께 검거된다. 그리하여 각각 2, 3년 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윤동주는 1945년 2월 16일, 송몽규는 3월 10일에 옥사한다. 민족주의에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었던 정지용으로서 그러한 윤동주의 전기적 일생이 꽤 깊은 인상으로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윤

일주의 부탁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을 쓰게 된 것이다.

청년 운동주는 의지가 약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정시에 우수한 것이겠고, 그러나 뼈가 강하였던 것이리라. 그렇기에 日賊에게 살을 내던지고 뼈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가?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고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하여 본 적도 없이! 일제 강점기에 날뛰던 附日文士놈들의 글이 다시 보아 침을 배알을 것뿐이나 無名 운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이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sup>20)</sup>

정지용이 이 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운동주의 애국이나 민족주의 사상이다.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렇듯 애국주의로 단선화되어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그 반대편에 놓인 친일문사들의 글에 대해서는 격렬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다. 운동주에 대한 평가는 정지용의 사상적 근거를 알게 해주는 또다른 근거가 된다. 이를 토대로 정지용은 이념선택의 자율성이 부여된 해방공간의 현실에서 민족주의 사상으로 현저하게 기울어 있음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지용이 한때 문학가동맹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를 좌익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이승만 중심의 독립축성회를 비롯한 우익에 사상적 거점을 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글이다.

한민당은 더러워서 싫고 빨갱이는 무시무시해서 싫다. 내가 이화에서 죄되는 일이 있다면 카톨릭신자라는 것이다<sup>21)</sup>

이화여전 재직시절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 언급만큼 정지용의 사상을 잘 대변해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친일행

20) 정지용, 『운동주 시집 서』, 『정지용 전집』2, pp.315-316.

21) 『한가람 봄바람에』(이화백년사), 김학동, 『정지용 연구』(민음사, 1987), p.159에서 재인용.

위에 대해 격렬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고 우익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친일 분자이거나 그들을 끌어안는 경우 그는 철저하게 배격했다. 뿐만 아니라 당파성을 근거로 하는 북로당이나 인민성 중심의 남로당으로부터도 거리를 두었다. 그러한 까닭에 해방직후 문학가동맹에 몸담은 사실만으로 그를 좌익인사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또한 그의 사유는 민족이 그 모든 것에 비해서 우선시되었기에 친일의 색채가 드리운 우익 성향의 정치 이념에 그의 사상을 묶어두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다. 그의 자의식 속에는 오직 조국만이 있었고, 민족만이 있었던 까닭이다.

이렇듯 그의 사상적 지형도를 추적해 들어가 볼 경우 그는 아마도 백범의 노선이 가장 가까운 듯이 보였다. 백범이 주도했던 민족주의는 친일을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남로당의 노선과 비슷했고, 시민의식이 고양된다는 점에서는 우익진영에 더 가까이 있었다. 정지용의 해방정국에서 보여준 이념적 지형은 애국주의가 결합된 민족주의였다. 그의 그러한 사상적 특색이 백범의 노선과 교집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면들은 이후 전개된 그의 문학 활동 속에 계속 공유하게 된다. 말하자면 정지용의 사상적 거점은 백범의 그것과 교집합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 행로를 따라서 그의 문학이랄까 문학관이 좌우되는 형국을 보여주었다.

#### 4. 해방공간의 한계와 문학의 좌절

친일분자의 배격과 민족주의로 집약되는 백범의 노선은 그러나 해방정국에 있어 주도적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임시정부 자체가 연합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못했고, 백범은 개인자격으로 국내에 귀국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백범은 해방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조국의 품에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혼돈과 분단이라는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이끌어줄 지지기반도, 그의 등 뒤를 받쳐 줄 든든한 권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개선문을 높이 세우고 당당히 환영받고 들어와야 할 그였지만 현실은 전연 그러하지 못한 것이다. 점점 득세해가는 친일파와 이에 결탁한 불온한 민족주의는 그 반대편에 섰던 백범을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남한에서의 권력은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까닭에 순결한 민족주의자 백범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그것은 백범의 암살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가 동족의 흉탄에 쓰러졌다는 것이야말로 그에게나 민족에 있어서나 최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해방의 감격과 환희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백범의 서거는 심각한 좌절을 안겨주었다. 그의 죽음은 해방 이후 꿈꾸어왔던 친일분자의 배격이라는 가 분단의 극복이라는 당면과제가 송두리째 배격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알게 모르게 백범의 사상에 자신의 정신적 준거점을 두고 있었던 정지용에게 백범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을 것이다. 정지용이 백범과 구체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남아 있지 않다. 백범이 조직했던 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고, 그와 접촉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지용은 자신의 산문에서 백범에 관해 잠시 언급해 놓은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언급만으로도 백범에 대한 그의 생각이랄까 이해의 틀이 어느 정도 읽혀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무슨 정황에 <유물론 선전>이나 <비교문학 교수>가 되는 것이라?

이제 국토와 인민에 불이 붙게 되었다.

백범옹이나 모든 좌익 별명 듣는 문화인이나 겨우 불 보고 불 끄려는 소망부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sup>22)</sup>

이 글은 해방 이전에 자신의 문학행위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쓴 것이다. 앞서 언급처럼 해방이전 순수 문학을 한 행위나 해방 이후 일각에서 제기하는 좌익 편향에 대해서 자신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글이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에서 해방정국과 백범에 대한 인식을 피력한 것이 이 글의 특징인데, 정지용은 해방 정국을 불이 난 형국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끄는 경우이다. 해방정국이 누구나 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희유의 공간이었다는 것, 그러하기에 그 정점에 도달하려는 주체들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혼란을 그는 불이 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그러한 불을 끌 수 있는 주체로 백범과 좌익 문화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백범과 좌익이 공유할 수 있는 지대란 친일분자의 배격에 있었다. 친일분자를 배격한 경우라면 새나라 건설의 주체로서 가능하다는 것이 백범과 좌익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민족을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었던 정지용이 백범과 동류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런 공유의식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백범 사상과 정치 노선에의 동조는 다음의 글에서 좀 더 확실한 모양새를 띠고 나타난다. 다음의 글은 해방 이후 정지용이 보여주었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이자 사상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민족주의 투사들은 해외파가 되어 싸워 왔고 맑시슴적 투사들은 다분히 감옥 아니면 지하로 잠기어 국내투쟁을 계속 전개하여 왔던 것이다.

투쟁에 전연 무관하였던 계층이 있었으니 대별하여 자산가 지주층이었고 이에 부수한 소시민들이오 附日 협잡배 악한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행정기구에 직접 日勤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자산가 지주 등이 附日 협력자가 아니었노라는 하등의 변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쯤은 지극히 용이한 상식인 것이다.<sup>23)</sup>

22) 정지용, 「산문」, 『정지용 전집』2, p.220.

인용 글은 해방이후 정지용의 사상이 민족주의로 표나게 기울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는 여기서 항일의 주체를 민족주의자와 마르크시스트로 규정하고 이들만이 진정한 민족 해방 투사였다는 것을 힘주어 언급하고 있다. 반면, 자산가 지주층이야말로 부일협잡배, 곧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친일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로서 갖고 있는 그의 이러한 면모는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더욱 확고하게 드러나게 된다.

일률로 조선민족이랄 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이라는 語義의 품위를 엄격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이란 용어를 강경히 사용하게 된 내력이 이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조선민족은 조선인민이었을 뿐이다.<sup>24)</sup>

해방정국에 있어서 친일분자와 민족반역자의 배제는 백범의 일관된 노선이었다. 물론 그것은 좌익의 노선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지향하는 노선이 다르긴 했어도 이 집단의 공통점은 친일분자의 배격에 있었다. 정지용은 이 시기에 그런 백범의 노선에 정확히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백범에 대한 정지용의 그러한 사상의 공유는 이 글의 말미에서 더욱 강하고 뚜렷하게 나타난다.

백범옹이 <좌익모략>에 떨어졌다는 등, 혹은 백범옹이 이북에서 생명이 보장 못되어 불귀객이 된다는 등 실로 가소 가증스러운 악선전이다.

전쟁사상 최대 처참한 蘇獨戰 폭발 당시에도 양국 외교사절이 살해되었다는 流言을 들은 일이 없거니와, 단말마적 일제 침략전에서도 연합군측 철거 외교관들이 역시 귀환선 귀빈선실에 유연히 나타났던 것은 뉴스 영화로 보았을 뿐이다.

민족의 大使節 백범옹이 이북 동족에게 대환호될 것을 알기에 무엇이 인색

23) 정지용, 『민족해방과 공식주의』, 『전집』2, p.385.

24) 위의 글, p.385.

히 굴 조건이 있는 것이냐?

이북 동포가 금수가 아닐 바에야 백범옹을 살해하여 막대한 불리를 自取하여 또한 이를 세계 이목에 제공할 조건이 백범옹 자신에게도 없는 것이다.<sup>25)</sup>

이 부분은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백범이 시도했던 남북 연석회의를 두고 분석한 글이다. 백범은 남한만의 단정수립을 반대했다.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나서 평생 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했던 백범으로서 이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백범의 북한행을 가장 반대했던 측은 민족주의 노선에 섰던 <독립축성회>였다. 이승만이 이끌었던 <독립축성회>는 친일분자를 비롯한 민족반역자들을 일부 수용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전력을 가진 자들을 좌익이나 백범의 노선에서 민족국가 건설이나 민족문화건설에 있어서 절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새나라 건설에서 친일분자나 민족반역자를 배제하자는 논리 역시 평양의 노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친일분자를 비롯한 반민족주의 노선은 백범의 평양행을 완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정지용의 경우도 이들의 논리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반민족주의적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일제 강점기 이후 평생을 간직하고 있었던 민족주의 사상이 이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지용이 백범의 노선과 공유할 수 있었던 부분도 여기에 있었다. 백범에 대한 정지용의 열렬한 옹호도 민족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정국은 정지용의 기대와는 전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새나라 건설의 꿈은 점점 설자리를 잃은 채 저물어만 갔다. 친일분자들은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했고, 민족의 분단은 더욱 공고화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간직해 왔던 평생의 꿈이 사라질 무렵 그 자

25) 위의 글, pp.386-387.

신과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던 백범이 서거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방이 후 민족문학의 주체에 대한 뚜렷한 자신이 없었던 정지용이었다. 일정한 정치노선이 옹골게 확립되지 못하고 진정한 민족문학이 파악되지 못한 그였기에 그는 문학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러한 방향과 무력감은 백범의 죽음으로 더욱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백범의 죽음이란 그에게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민족문학에 대한 기대마저 소멸되기 만들었다. 민족 문학의 도정에서 줄타기를 해오던 정지용으로는 극심한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躑躅開터/눈 위에도/축지 않은 바람//클라리오넬이 울고/북이 울고/천막이 후두둑거리고/旗가 날고/야릇이도 설고 흥청스러운 밤//말이 달리다/불테를 뚫고 넘고/말 위에/기집아이 뒤집고//물개/나팔 불고//그네 뛰는 게 아니라/까이만 공중 눈부신 땅재주!//甘藍 포기처럼 싱싱한/기집아이의 다리를 보았다//(중략)클라리오넬이 울고/북이 울고//가죽 잡아 입은 團長이/이웃! 이웃! 激勵한다/防寒帽 밑 外套 안에서/危殆 千萬 나의 마흔아홉 해가/접시 따라 돈다 나는 拍手한다.// 「曲馬團」부분

이 작품이 실린 시기는 1950년 2월이다. 이 시기는 이미 백범이 암살되고 남북간의 단정 수립이 종료된 때이다. 다가올 전쟁의 비극은 예비되지 않았지만, 해방정국의 혼란상이 어느 정도 정돈 된 뒤의 일인 것이다. 그러나니까 모든 것이 종료된 후에 쓰여진 작품인 셈인데, 그럼에도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안정감이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 시는 해방 이후 몇 편 되지 않은 그의 시편 가운데, 시대적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인지도 모르겠다.

정지용은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49년의 삶을 접시가 위협스럽게 돌듯이 아슬아슬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의 이러한 판단은 인생 전반

에 대한 반성이면서 해방 정국의 좌절이 가져다 준 결과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불안한 삶 속에는 해방의 감격과 모색 속에서 이루지 못한 민족 문학에 대한 꿈과 회한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자신의 인생을 아슬아슬한 곡예로 인식한 그는 더 이상 문학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했다. 점증하는 친일분자의 발호와 득세해가는 반민족주의의 어두운 행로를 보면서 그의 문학 행위는 더 이상 나아갈 동력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백범의 죽음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민족문학에 대한 꿈조차 앗아가 버렸다. 아슬아슬했던, 곡예와 같던 인생마저 서서히 저물고 문학은 그의 곁을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곡마단」과 더불어 정지용이 마지막으로 쓴 「四四調五首」는 그의 문학 사적 흐름으로 볼 때,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곡마단」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돌아가는 곡마단의 점시에 비유했다. 해방의 꿈과 좌절이 준 폭과 깊이를 감안하면 이런 인식은 지극히 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시조형식을 빌어 표현했다. 최후의 작품이 시조형식으로 구현된 것인데, 이는 그의 문학사적 의미망에 비춰볼 때, 「곡마단」 못지않은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조란 정형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장르이다. 그것의 현대 사회에서 그 효용성 여부를 떠나 시조는 근대 문학이 개시된 이래로 꾸준히 창작되어 왔다. 그런데, 시조의 현대적 가능성을 운위할 때 늘상 문제시 되던 것이 정형률의 문제이다. 정형률이란 집단의 이상과 꿈이 배태된 율격이다. 그러한 까닭에 개인의 개성이랄까 고유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근대 시가의 특성이 개성에 기반을 둔 자율성에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거니와 시조형식은 정형률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에 그것의 현대적 가능성이 항상 의심받아 온 것이다. 정형률로의 복귀는 개성의 포기 혹은 상실을

의미한다.

해방이후 정지용이 보여준 문학 형식은 주로 산문에 의거해 있었다. 시를 간간히 쓰긴 했지만 자신의 사유와 인식을 드러내는 데 있어 그가 차용한 형식은 산문이었다. 산문이란 논리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는 이 장르를 통해서 해방정국을 헤쳐 나가는 논리적 거점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된 정국은 정지용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던 순수 민족주의의 노선은 허락되지 않았고, 백범의 죽음은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었다. 정지용은 그러한 불편부당한 현실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고민의 끝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장르가 시조였다. 이런 면에서 정지용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장르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시조란 정형적인 것이어서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방정국의 말미에서 그는 등단 이후 장대한 대하처럼 흐르던 근대의 이상도 조국에 대한 꿈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형국을 맞이한다. 그리하여 그가 선택한 것이 시조형식이었다. 자유시 양식의 포기란 근대의 포기를 의미했다. 근대가 끝나는 자리에서 솟아오른 것이 그에게 시조 양식이었다. 그는 시조의 형식을 등에 업고 ‘나비’와 같이 근대의 뒤편길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근대를 초월하고 문학을 포기할망정 그의 민족주의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1950년대 들어서 그의 산문 활동은 지속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태준에게 보낸 편지였다. 이태준은 『문장』지 활동을 함께한 동료였다. 그러한 이력이 뒷받침되어 이념의 선택이 남보다 빨랐던 이태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왜 자네의 월북이 잘못이고 하니 兩軍政撤退를 催促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이 빠르기까지 다시 완전 자주 이후 무궁한 年月까지 자네가 민족의 소설가로 버티지 않고 볼 수 없이 빨리 38선을 넘은 것일세. (중략)

애초에 잘못할 계획이 아니었을지라도 결과가 몹시 글러지고 말었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조국의 서울로 돌아오라! 신생 대한민국 범치 하에 소설가 이태준의 좌익썸이야 건설명량한 지상으로 포용할만하게 되었다.

빨리 빠져올 도리 없거던 조국의 화평무혈통일을 위하여 끝까지 붓을 칼삼어 싸우고 오라.<sup>26)</sup>

1950년을 기점으로 보면, 이태준이 월북한 것은 약 5년 전 썸의 일이다. 물론 정지용이 북으로 간 이태준에게 조국의 서울로 되돌아오라 한 것은 남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정지용은 한때 좌익을 했다는 혐의로 보도연맹<sup>27)</sup>에 가입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요구로 이런 류의 글을 썼던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정지용이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에 관한 것, 곧 민족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태준의 월북이 분열이고 이탈이라는 시각이 바로 그러하다. 해방정국에서 분열주의나 분단을 가장 경계했던 사람이 백범이었고 정지용이 피력했던 사유이다. 그것은 그가 꾸준히 개진했던 민족주의 사상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정지용이 이 글의 말미에서 이태준으로 하여금 “빨리 빠져올 도리 없거던 조국의 화평무혈통일을 위하여 끝까지 붓을 칼삼어 싸우고 오라”고 한 것도 그 연장선에 놓인 것이다.

그의 민족주의는 이후 『국도일보』의 청탁으로 한국전쟁 전후까지 쓰여진 그의 남해기행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 이런 심정주의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에 대한 열정과 애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국토와 조국이란 그에게 실존 이전에 존재하는 선험적인 어떤 것과 같은 것이었다.

26) 정지용, 『소설가 이태준 군 조국의 <서울>로 돌아오라』, 『정지용 전집』2, p.416.

27) 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파전향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승만 정권이 사상을 통제하여 자신의 정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만들려는 의도 하에서 조직된 단체였다.



승승장구 진주성을 둘러싸고 호기양양한 왜장 게야무라는 절세미인 논개를 거느리고 축석루에서 취했다. 축석루 아래 푸른 수심에 솟은 반석 위에서 논개에게 안기어 춤을 추었다. 논개의 아름다운 열 손가락에 열 개 옥가락지가 끼어 있었다. 음아질타에 천인이 쏟아질 만한 무장이 일개미기 논개의 팔 안에 들었다. 열개 손가락에 열 개 옥가락지가 적장의 목을 고풍 잡듯 잡겠지, 반석 위에서 남강수심으로 떨어졌다.<sup>28)</sup>

전쟁 직전에 이루어진 정지용의 마지막 남도 기행지는 진주였다. 그가 이곳에서 본 것은 통영에서와 마찬가지로 구국의 영웅에 관한 전설이었다. 비천한 기생의 신분이지만,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논개의 충정을 통해서 시대의 당면과제를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지용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글쓰기조차 애국과 민족에 대한 충정에 바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문학적 출발이 향토애였고 그 마지막이 조국애였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였다. 바로 민족에 대한 사랑, 곧 처절한 민족주의의 발로였던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3일이 지난 1950년 6월 28일 『국도신문』에 「진주5」라는 수필을 끝으로 그의 글쓰기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는 그해 7월 자신이 살고 있던 녹번리 초당에서 그의 집을 자주 드나들던 설정식 등 2, 3명의 젊은 친구들과 나간 뒤 소식이 끊어졌다고 한다.<sup>29)</sup> 그것이 남한에서의 그의 마지막 행적이고 또 문인으로서의 그의 마지막 행로이기도 했다.

## 5. 민족주의 민족문학 건설의 행방, 그리고 현재적 의의

해방공간을 대표했던 민족문학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성을 갖는 것

28) 정지용, 「진주1」, 『정지용 전집』2, p.141.

29) 김학동, 앞의 책(1987), p.162.

으로 이해되어 왔다. 평양중심의 북로당, 박헌영 중심은 남로당, 그리고 우익 진영이 바로 그러했고, 이를 대신하는 것이 당파성, 인민성, 시민성의 문학이념이었다. 그러나 우익진영의 문학이념을 시민성으로 단선화하는 것은 백범을 비롯한 임시정부계를 철저히 도외시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해방기를 대표했던 이승만과 김구는 정치적 입장이 전연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혼란 속에서 해방 정국이 가져온 결과일 것이다. 북한 중심의 북로당과 이승만 중심의 우익진영이 마지막 승리를 하고, 인민성과 김구 중심의 또다른 시민성은 패배했다. 오늘날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견고한 분단체제였다. 그러나 그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월한 것이라 해도 민족보다 앞에 놓일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일국가이다. 그것은 시대의 요구이자 민족의 당면과제이다. 그런데 그 기본 토대가 되는 민족뿐이다. 민족을 초월한 어떠한 이념도 지금 여기의 불온한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다. 하나의 민족으로 나아가기 위한 백범의 노선이 좌절된 것은 민족의 가치가 저하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민족을 초월한 도구적 욕망이 우선시됨으로써 분단이라는 좌절을 맞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란 민족의, 민족에 의한, 민족을 위한 가치체계이다. 그 위대한 가치가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분단이라는 쓰라린 비극만이 지금 여기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땅과 민족, 그리고 그 그리움의 세계 속에서 민족문학의 매개로 삼고자 했던 정지용의 민족문학이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분열을 통합으로 이끄는 것은 공통성이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공동의 정서란 흙이다. 그것은 곧 국토이고, 민족이다. 그것이 하나로 복원될 때, 백범 등이 추구했던 민족주의는 제대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정지용이 평생의 가치로 추구했던 것도 민족이었다. 그는 그것의 문학적 실현을 위해 평생

을 받쳐왔다. 바로 민족주의 민족문학의 건설이었다. “차마 그곳이 꿈엔들 잊을 수 없다는 것”, 그 흠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가 민족문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복원을 오늘날 정지용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기림, 『우리 시의 방향』, 『건설기의 조선문학』, 1946, 6.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청춘의 감각, 조국의 사상』, 솔, 1999.  
——,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김은자, 『정지용』, 새미, 1996.  
김학동, 『정지용 연구』, 민음사, 1987.  
김환태, 『京都의 3年』, 『김환태 전집』, 문학사상사, 1988.  
박목월, 『보랏빛소묘』, 『박목월』(박현수 엮음), 새미, 2002.  
오장환, 『조선시에 있어서의 상징』, 『신천지』, 1947, 1.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1999.  
——, 『정지용』, 문학세계사, 1996.  
임 화,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업무』, 『문화전선』, 1945, 11.  
정지용, 『전집』1, 민음사, 1988.  
——, 『전집』2, 민음사, 1988.  
한 효, 『예술운동의 전망』, 『예술운동』 창간호, 1945, 12.

**Abstract**

The study of meaning of the literature of  
Jeong Ji Young in Haebang Period

Sohng, Ki-Han

This paper studied the features of nationalism and nature place of Jeong Ji Young and analyzes the modern poetry world of Jeong Ji Young. It is times pointed out that nationalism and nature place in the nature of Jeong Ji Young was features of Haebang Period.

His nationalism and nature place of Jeong Ji Young has been involved nationalism and geographical dictionary's features in the Haebang Period's poetry. That is sea, Catholicism, desire and eternal in first period.

The poetical investigation of Jeong Ji Young, as we pointed out in his text, embodies a start of modern korean poetry, especially in the between nationalism and nature place's senses. That is to say, his nationalism and nature place senses, have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in his major poetry. The nationalism and nature place, united world and recover is the important concept in his Haebang Period' poetry. This work is the first stage departing from Haebang Period' poetry. That is the theme of the most important poetry of Jeong Ji Young

Key Word : Jeong Ji Young, nationalism, purism, nature place, geographical dictionary, nostalgiae

송기한

소속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300-716) 대전시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10-8955-4906

전자우편 : skh906@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4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